

## 일 대학 치기공과 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권 순 석  
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 Factors affecting the dropout intention in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of D College

Soon-Suk Kwon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Kyungdong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dropout intentions of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of a college.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76 freshmen and 74 sophomores of dental technician major in an anonymous college. Results from the questionnaire called K-vision diagnosis program were computed by means of t-test,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1. Total points of the drop out intention came to 782.14 points. Of the five categories concerned with the drop out intention, complain in college satisfaction(50.12points) was the highest and department satisfaction(47.51points) was the lowest. Of 16 subcategories, complaining in administrative supporting system proved the highest as 50.80 points and Inquiry to Professor the lowest(45.56 points). 2.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 gender ( $p < .01$ ), student group ( $p < .01$ ), and credit ( $p < .05$ ) made a meaningful statistical differenc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grade, admission, and dwellings. 3. Of the five categorie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hown as follows; Department satisfaction ( $p < .01$ ), College satisfaction ( $p < .05$ ) under gender, Department satisfaction ( $p < .05$ ) in grade, Academic integration ( $p < .01$ ), Department satisfaction ( $p < .01$ ) in credit. No statistical meaning was found in admission and dwellings. 4.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under 16 subcategories as follows: Career identification( $p < .01$ ), Academic support system( $p < .01$ ), Social activity II( $p < .05$ ) in gender area, Inquiry to professor( $p < .01$ ), Learning( $p < .05$ ), Understanding learning I( $p < .05$ ) in grade area, Learning( $p < .001$ ), Career identification( $p < .001$ ), Understanding learning I( $p < .01$ ), Understanding learning II( $p < .01$ ), Inquiry to professor ( $p < .01$ ), Learning ability ( $p < .05$ ), Occupation ( $p < .05$ ), Social Activity II( $p < .05$ ),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 $p < .05$ ) in student group area, Credit ( $p < .001$ ), Career identification ( $p < .01$ ), Understanding learning I( $p < .05$ ) in credit area; admission and dwellings was statistically meaningless. 5. Of the 5 categories academic integration ( $r = .766$ ) was most relevant to the dropout intention of the subjects and followed by department satisfaction ( $r = .735$ ), college satisfaction ( $r = .554$ ), service acceptability ( $r = .373$ ),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      |             |  |     |              |        |                |             |
|------|-------------|--|-----|--------------|--------|----------------|-------------|
| 교신저자 | 성명          | 권 순 석                                    | 전화  | 033-639-0663 | E-mail | kss37@k1.ac.kr |             |
|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도리원길 5 경동대학교 설악 제2캠퍼스 치기공학과(청초관) |     |              |        |                |             |
| 접수일  | 2013. 7. 31 |  | 수정일 | 2013. 9. 4   |        | 확정일            | 2013. 9. 13 |

shown as  $p < .01$ .

**Conclusi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are in a pressing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aiming at preventing the dropout rates of the dental technician majors at college. In tandem with this, qualitative and via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the dental technicians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 Dental technology students, Dropout, Stop out, Withdrawal

## I. 서 론

학교 중도탈락이란 학생이 입학한 학교를 다니던 중에 휴학 후 미복학, 자퇴(drop-out), 편입학(transfer)등 개인, 가정, 학교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의도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그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하며(Garrison, 1985; 김경희, 2011), 이는 자신이 소속된 학교(과)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적인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희민, 2010).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현상이 각 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정부의 대학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재학생 충원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부모와 우수한 재원들의 수도권 대학교 선호현상, 지방 대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이 매년 증가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중한 대학입시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고려한 진로탐색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합격율 목표에 한 학과와 대학을 선택함으로써(임근옥, 2004), 대학(교) 입학 후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문제로 많은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신현순, 2009).

대학 알리미 사이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20개 대학에 개설된 치기공(학)과의 중도탈락 학생비율의 전체 평균은-야간 학생 제외- 3.5%로 우리나라 전국 대학(6.0%) 및 전문대학(8.0%) 전체 평균의 보다 낮았으며, 4년제 치기공학과의 전체 평균은 2.9%로, 3년제 치기공과(3.6%) 보다 낮았다. 이는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은 학과의 입학 동기가 대부분 높은 취업률과 자신의 적성을 고려했고(배봉진과 이화식, 2011), 치기공과 재학생의 약

70%는 전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최운재와 유상희, 2012)는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전문대학의 중도탈락 학생비율 평균은 2010년 7.7%에서 2011년 7.9%, 2011년 8.1%로 계속 증가했으며, 전국 치기공(학)과의 중도탈락 학생의 평균 비율도 2010년 2.9%, 2011년 3.4%, 2012년 3.5%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3년제(3.2%, 3.7%, 3.6%)에 비해 4년제(1.4%, 1.5%, 2.9%)에서 중도탈락 학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치기공(학)과 개설대학 중 4개 대학교-고려, 동남, 신구, 신흥-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중도탈락 비율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치기공(학)과 재학생의 중도탈락 비율도 매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 결과 재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박금주(2013)는 본인의 충실하지 못한 대학생활과 함께 대학이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학생을 외면한 행정지원체제 등으로 나타났고, 임언과 곽윤영(2011)은 학업중단에 아버지의 학력, 가구소득, 고교성적, 대학 및 전공 만족도, 학습태도가, 김효은과 김기원(2011)은 교우관계, 대학 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지 등에 의해서도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권혜진(2010)은 개인의 흥미와 교육기관의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했다. 노혜란과 최미나(2008)는 학교와 전공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하거나 전공이 적성에 부합할 경우,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좋을 경우, 학비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경우에 대학 중도탈락 확률이 낮다고 하였고, 김수연(2006)은 성별, 연령, 거주지와 학교 위치가, 오영재(2005)는 대학 평판 등을 포함하는 문화적 요인과 취업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제적 요인이 일관된 영향을 미치며, 박승철(2012)은 대

학과 전공 적응에 매우 중요한 신입생 시기에 학과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이 중도탈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다고 했다.

대학 중도탈락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력의 사회적 공급차질을 초래하고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해당 대학과 학과 차원에서는 시설 및 인력 자원의 잉여화를 초래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질 및 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김용남, 2009). 또한 재학생 입장에서는 학업지연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고 사회 적응에 악영향을 미쳐 삶의 질 저하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박승철, 2012) 국가적,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과 및 재학생 자신의 개인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이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의 중도탈락자의 예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유능한 전문 구강보건인력 자원인 치과기공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도탈락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 S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 대학 치기공과 1, 2학년 재학생 전체(160명)를 대상으로 2012년 11월에 실시한 K-Vision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1학년 76명(93.8%)과 2학년 74명(93.7%) 총 150명(93.8%)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K-Vision 진단 설문지는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김수연(2006), 오지혜(2007), 박희민(2010)의 연구 등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5개의 영역-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학과만족, 서비스의 수용성, 대학만족-과 16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항목별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된 점수로 표시하였다. 각 항목별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며, 5개 영역의 합계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이는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일반적 특성 항목으로는 성별, 학년, 학생군, 지원유형, 거주지, 학점을 조사했고,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40$ 으로 나타났다.

###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중도탈락 위험성 진단 문항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진단 문항의 5개 영역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하였으며,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II. 결 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70.7%로 '여성' (29.3%)보다 많았고, 학년에서는 '1학년'이 50.7%로 '2학년' (49.3%)보다 약간 많았으며, 학생군은 '재학생'이 64.0%로 '복학생' (36.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에서는 '일반전형'이 86.7%로 '특별전형' (13.3%)보다 많았고, 거주지는 '경기도'가 37.3%로 가장 많고, 학점은 '80~89점'이 45.3%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 Variable                        | Subcategory           | Frequency(N) | (%)  |
|---------------------------------|-----------------------|--------------|------|
| Sex                             | Male                  | 106          | 70.7 |
|                                 | Female                | 44           | 29.3 |
| Grade                           | 1st                   | 76           | 50.7 |
|                                 | 2nd                   | 74           | 49.3 |
| Students group                  | Enrolled students     | 96           | 64.0 |
|                                 | Returning students    | 54           | 36.0 |
| Screening process for admission | Regular               | 130          | 86.7 |
|                                 | Special               | 20           | 13.3 |
| Residence                       | Seoul                 | 36           | 24.0 |
|                                 | Gyeonggi-do           | 56           | 37.3 |
|                                 | Gangwon-do            | 52           | 34.7 |
|                                 | Other                 | 6            | 4.0  |
| Credit                          | ≥90 (Excellent)       | 37           | 24.7 |
|                                 | 80~89 (Above Average) | 68           | 45.3 |
|                                 | 70~79 (Average)       | 30           | 20.0 |
|                                 | <69 (Below Average)   | 15           | 10.0 |

## 2.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의도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의도를 기술 분석한 결과 전체 총점은 782.14점으로 나타났고, 5개 영역별 점수는 대학만족에 대한 불만이 50.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의 수용성 49.40점, 사회적 통합성 49.05점, 학문적 통합성 48.39점, 학과만족 47.51점 순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하위요인에서는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불만이 50.80점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재정 50.61점, 대학환경 50.50점, 직업 49.79점, 의견교환 49.76점, 사회활동 I 49.31점, 학습 능력 49.24점, 교육지원체계 49.06점, 학과질의 48.87점, 학습이해 II 48.63점, 학습이해 I 48.50점, 의사소통 48.34점, 진로정체성 48.11점, 사회활동 II 47.87점, 학습 47.20점, 교수질의 45.56점 순으로 불만족하게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 of dropout intention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N=150)

| Category               | Sub-category                 | Mean  | S.D.  |
|------------------------|------------------------------|-------|-------|
| Academic consolidation | Learning ability             | 49.24 | 10.76 |
|                        | Learning                     | 47.20 | 12.12 |
|                        | Understanding of learning I  | 48.50 | 11.36 |
|                        | Understanding of learning II | 48.63 | 11.97 |
|                        | Total                        | 48.39 | 7.75  |
| Social consolidation   | Communication skills         | 48.34 | 11.54 |
|                        | Exchange of idea             | 49.76 | 10.67 |
|                        | Total                        | 49.05 | 9.30  |

| Category                   | Sub-category                  | Mean   | S.D.  |
|----------------------------|-------------------------------|--------|-------|
| Satisfaction of department | Professor inquiry             | 45.56  | 10.34 |
|                            | Department inquiry            | 48.87  | 9.77  |
|                            | Career identification         | 48.11  | 10.69 |
|                            | Total                         | 47.51  | 8.49  |
| Service acceptability      | Occupation                    | 49.79  | 9.67  |
|                            | Finance                       | 50.61  | 10.99 |
|                            | Social activity I             | 49.31  | 9.76  |
|                            | Social activity II            | 47.87  | 10.70 |
|                            | Total                         | 49.40  | 6.81  |
| Satisfaction of college    |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 50.80  | 10.62 |
|                            | Academic support system       | 49.06  | 10.30 |
|                            | College environment           | 50.50  | 10.70 |
|                            | Total                         | 50.12  | 9.32  |
| Total                      |                               | 782.14 | 78.41 |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

####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가 811.34점으로 남학생(770.02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1$ )가 나타났다. 5개 영역에서도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대학만족에 대한 불만이 53.07점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의 수용성(49.89점)이 가장 낮았으며, 남학생은 서비스의 수용성이 49.19점으로 가장 높고 학문적 통합성(47.63점)이 가장 낮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5개 영역 중 학과만족( $p < .01$ )과 대학만족(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16개 하위요인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체계(53.28점)가 가장 높고, 교수질의(47.66점)가 가장 낮았으며, 남학생은 재정(51.12점)이 가장 높고, 교수질의(44.69점)가 가장 낮았다. 성별에서는 16개 하위요인 중 진로정체성( $p < .01$ )과 교육지원체계( $p < .01$ ), 사회활동 II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의 중도탈락 의도가 791.59점으로 2학년(772.4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5개 영역 중 서비스의 수용성에서만 2학년(49.63점)이 1학년(48.97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1학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영역의 경우 1, 2학년 모두 대학만족에 대한 불만이 각각 50.42점과 49.80점으로 가장 높고 학과만족이 각각 48.97점과 46.0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5개 영역 중 학과만족(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16개 하위요인에서는 1학년의 경우 행정지원 체계에 대한 불만이 51.73점으로 가장 높고, 교수질의(47.76점)가 가장 낮았으며, 2학년은 직업에 대한 불만이 51.23점으로 가장 높고, 교수질의(43.30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에는 16개 하위요인 중 교수질의( $p < .01$ ), 학습( $p < .05$ ), 학습이해II(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 of dropout intention in sex and grand (N=150)

| Category                      | Variable | Sex             |                  |          | Grade         |               |         |
|-------------------------------|----------|-----------------|------------------|----------|---------------|---------------|---------|
|                               |          | Male<br>(N=106) | Female<br>(N=44) | t        | 1st<br>(N=76) | 2nd<br>(N=74) | t       |
|                               |          | M(S.D.)         | M(S.D.)          |          | M(S.D.)       | M(S.D.)       |         |
| Learning ability              |          | 49.13(11.34)    | 49.49(9.33)      | -0.186   | 47.91(11.05)  | 50.60(10.35)  | -1.541  |
| Learning                      |          | 46.04(11.89)    | 49.98(12.34)     | -1.825   | 49.61(10.15)  | 44.72(13.48)  | 2.513*  |
| Understanding of learning I   |          | 47.62(11.79)    | 50.62(10.07)     | -1.476   | 50.32(10.33)  | 46.63(12.11)  | 2.010*  |
| Understanding of learning II  |          | 47.73(12.13)    | 50.82(11.41)     | -1.446   | 49.37(9.89)   | 47.88(13.81)  | 0.759   |
| Academic consolidation        |          | 47.63(7.74)     | 50.23(7.54)      | -1.883   | 49.30(6.56)   | 47.46(8.76)   | 1.461   |
| Communication skills          |          | 48.04(11.28)    | 49.06(12.26)     | -0.496   | 48.71(11.58)  | 47.96(11.57)  | 0.398   |
| Exchange of idea              |          | 49.06(11.34)    | 51.44(8.75)      | -1.248   | 50.81(10.48)  | 48.67(10.82)  | 1.231   |
| Social consolidation          |          | 48.55(9.66)     | 50.25(8.37)      | -1.022   | 49.76(9.43)   | 48.31(9.17)   | 0.952   |
| Professor inquiry             |          | 44.69(11.27)    | 47.66(7.33)      | -1.610   | 47.76(10.03)  | 43.30(10.22)  | 2.700** |
| Department inquiry            |          | 47.95(10.04)    | 51.10(8.80)      | -1.813   | 49.70(9.60)   | 48.03(9.93)   | 1.045   |
| Career identification         |          | 46.33(10.28)    | 52.39(10.55)     | -3.259** | 49.46(11.27)  | 46.72(9.94)   | 1.581   |
| Satisfaction of department    |          | 46.32(8.82)     | 50.38(6.92)      | -2.723** | 48.97(8.57)   | 46.01(8.19)   | 2.161*  |
| Occupation                    |          | 49.60(10.18)    | 50.25(8.42)      | -0.371   | 48.39(10.83)  | 51.23(8.14)   | -1.809  |
| Finance                       |          | 51.12(10.47)    | 49.40(12.19)     | 0.869    | 51.08(9.49)   | 50.14(12.39)  | 0.523   |
| Social activity I             |          | 49.45(10.43)    | 48.97(8.00)      | 0.274    | 49.01(10.35)  | 49.62(9.18)   | -0.376  |
| Social activity II            |          | 46.60(11.17)    | 50.94(8.86)      | -2.294*  | 48.20(11.12)  | 47.54(10.32)  | 0.377   |
| Service acceptability         |          | 49.19(7.15)     | 49.89(5.97)      | -0.570   | 49.17(7.11)   | 49.63(6.54)   | -0.411  |
|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          | 49.92(11.45)    | 52.90(8.02)      | -1.570   | 51.73(9.99)   | 49.83(11.22)  | 1.096   |
| Academic support system       |          | 47.30(10.82)    | 53.28(7.50)      | -3.346** | 48.93(10.81)  | 49.19(9.82)   | -0.156  |
| College environment           |          | 49.44(11.35)    | 53.04(8.54)      | -1.891   | 50.60(9.69)   | 50.39(11.72)  | 0.123   |
| Satisfaction of college       |          | 48.89(9.93)     | 53.07(6.88)      | -2.550*  | 50.42(8.55)   | 49.80(10.09)  | 0.405   |
| Total                         |          | 770.02(80.12)   | 811.34(66.29)    | -3.017** | 791.59(75.37) | 772.43(80.78) | 1.502   |

\*p<.05, \*\*p<.01, \*\*\*p<.001

2) 학생군과 입학전형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

학생군에 따라서는 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가 796.62점으로 복학생(756.40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5개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수용성에서만 복학생(49.80점)이 재학생(49.17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5개 영역 중 재학생은 대학만족에 대한 불만이 51.10점으로 가장 높고 학과만족(49.17점)과 서비스의 수용성(49.17점)이 가장 낮았으며, 복학생은 서비스의 수용성에 대한 불만이 49.80점으로 가장 높고 학

과만족(44.57점)이 가장 낮았다. 학생군에 따라서는 5개 영역 중 학문적 통합성(p<.01), 학과만족(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6개 하위요인 중 재학생의 경우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불만이 52.47점으로 가장 높고, 교수질의(47.41점)가 가장 낮았으며, 복학생에서는 직업에 대한 불만이 51.94점으로 가장 높고, 학습(42.10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군에서는 16개 하위요인 중 학습(p<.001)과 진로정체성(p<.001), 학습이해I(p<.01), 학습이해II(p<.01), 교수질의(p<.01), 학습능력(p<.05), 직업(p<.05), 사회활동II(p<.05), 행정지원체계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입학전형에 따라서는 일반전형의 중도탈락 의도가 784.41점으로 특별전형(767.39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5개 영역에서도 일반전형의 점수가 특별전형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반전형의 경우 5개의 영역 중 대학 만족(50.43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고 학과만족(47.58 점)이 가장 낮았으며, 특별전형에서는 사회적 통합성

(48.72점)이 가장 높고 학과만족(47.0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개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전형에서는 16개 하위요인 중 대학환경에 대한 불만이 51.11점으로 가장 높고, 교수질의(45.78 점)가 가장 낮았으며, 특별전형에서는 학습이해I(51.84점)가 가장 높고, 교수질의(44.14점)가 가장 낮았다. 입학전형에서는 16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 of dropout intention in students group and screening process (N=150)

| Category                      | Variable      | Students group  |                  |               | Screening process |                |   |
|-------------------------------|---------------|-----------------|------------------|---------------|-------------------|----------------|---|
|                               |               | enrolled (N=96) | returning (N=54) | t             | regular (N=130)   | special (N=20) | t |
|                               |               | M(S.D.)         | M(S.D.)          |               | M(S.D.)           | M(S.D.)        |   |
| Learning ability              | 47.91(10.57)  | 51.60(10.79)    | -2.034*          | 49.88(10.56)  | 45.09(11.37)      | 1.866          |   |
| Learning                      | 50.07(10.95)  | 42.10(12.51)    | 4.064***         | 47.38(12.20)  | 46.01(11.83)      | 0.469          |   |
| Understanding of learning I   | 50.72(9.91)   | 44.56(12.73)    | 3.290**          | 47.99(11.80)  | 51.84(7.25)       | -1.416         |   |
| Understanding of learning II  | 50.59(10.81)  | 45.16(13.19)    | 2.722**          | 48.49(12.31)  | 49.54(9.66)       | -.364          |   |
| Academic consolidation        | 49.82(6.87)   | 45.85(8.60)     | 3.095**          | 48.44(8.00)   | 48.12(6.09)       | 0.167          |   |
| Communication skills          | 49.15(11.69)  | 46.90(11.23)    | 1.146            | 48.30(11.78)  | 48.59(10.14)      | -0.103         |   |
| Exchange of idea              | 50.71(10.21)  | 48.06(11.33)    | 1.464            | 49.90(10.49)  | 48.86(12.01)      | 0.403          |   |
| Social consolidation          | 49.93(9.29)   | 47.48(9.21)     | 1.553            | 49.10(9.25)   | 48.72(9.91)       | 0.167          |   |
| Professor inquiry             | 47.41(9.50)   | 42.27(11.02)    | 3.002**          | 45.78(10.55)  | 44.14(8.91)       | 0.659          |   |
| Department inquiry            | 49.71(9.80)   | 47.40(9.62)     | 1.393            | 48.79(9.88)   | 49.41(9.22)       | -0.262         |   |
| Career identification         | 50.40(11.12)  | 44.04(8.54)     | 3.642***         | 48.17(10.77)  | 47.73(10.38)      | 0.168          |   |
| Satisfaction of department    | 49.17(8.54)   | 44.57(7.62)     | 3.292**          | 47.58(8.66)   | 47.09(7.42)       | 0.237          |   |
| Occupation                    | 48.59(9.97)   | 51.94(8.81)     | -2.060*          | 50.05(9.28)   | 48.10(12.10)      | 0.841          |   |
| Finance                       | 50.15(10.53)  | 51.43(11.81)    | -.683            | 50.92(10.72)  | 48.65(12.72)      | 0.858          |   |
| Social activity I             | 48.70(9.89)   | 50.40(9.51)     | -1.023           | 49.62(10.05)  | 47.33(7.53)       | 0.975          |   |
| Social activity II            | 49.24(10.20)  | 45.44(11.23)    | 2.111*           | 47.88(10.75)  | 47.81(10.64)      | 0.026          |   |
| Service acceptability         | 49.17(6.66)   | 49.80(7.12)     | -.545            | 49.62(6.96)   | 47.97(5.69)       | 1.004          |   |
|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 52.47(9.32)   | 47.82(12.14)    | 2.626*           | 51.09(10.70)  | 48.85(10.12)      | 0.878          |   |
| Academic support system       | 49.76(10.03)  | 47.81(10.76)    | 1.114            | 49.07(10.10)  | 48.94(11.85)      | 0.055          |   |
| College environment           | 51.06(9.19)   | 49.49(13.00)    | .863             | 51.11(10.61)  | 46.50(10.71)      | 1.810          |   |
| Satisfaction of college       | 51.10(7.89)   | 48.37(11.30)    | 1.731            | 50.43(9.19)   | 48.10(10.15)      | 1.042          |   |
| Total                         | 796.62(75.92) | 756.40(76.80)   | 3.102**          | 784.41(78.49) | 767.39(78.29)     | 0.903          |   |

\* $p < .05$ , \*\* $p < .01$ , \*\*\* $p < .001$

3) 거주지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

거주지에 따라서는 ‘강원도’의 중도탈락 의도가 785.61점으로 가장 높고 ‘기타지역’(776.55점)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개 영역의 경우 ‘기타지역’은 사회적 통합성(51.24점)과 학과만족(49.11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는 대학만족(49.19점), ‘경기도’는 서비스의 수용성(49.92점), ‘강원도’는 학문적 통합성(49.09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지역’은 학문적 통합성과 서비스의 수용성 및 대학만족에 대한 불만이 각각 47.54점, 47.25점, 49.19점으로 가장 낮았고, 사회적 통합성은 ‘강원도’

가 48.46점으로, 학과만족은 ‘경기도’가 46.4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개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6개 하위요인 중 ‘서울시’와 ‘강원도’는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불만이 각각 51.94점과 51.62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대학환경(51.10점)이, ‘기타지역’은 학습능력(54.8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강원도’, ‘기타지역’은 교수질의에 대한 불만이 각각 45.61점, 45.83점, 42.82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는 학습이해I에 대한 불만이 45.2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16개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 of dropout intention in residence (N=150)

| Category                      | Variable | Residence     |                    |                   |               | F     |
|-------------------------------|----------|---------------|--------------------|-------------------|---------------|-------|
|                               |          | Seoul (N=36)  | Gyeonggi-do (N=56) | Gangwon-do (N=52) | Other (N=6)   |       |
|                               |          | M(S.D.)       | M(S.D.)            | M(S.D.)           | M(S.D.)       |       |
| Learning ability              |          | 48.94(10.52)  | 49.93(11.05)       | 48.06(10.54)      | 54.81(11.80)  | 0.826 |
| Learning                      |          | 46.28(12.08)  | 47.26(12.66)       | 47.72(12.05)      | 47.52(9.93)   | 0.101 |
| Understanding of learning I   |          | 45.24(11.17)  | 48.48(10.03)       | 51.40(12.10)      | 43.20(13.27)  | 2.631 |
| Understanding of learning II  |          | 50.35(14.29)  | 47.47(11.36)       | 49.16(10.86)      | 44.63(12.58)  | 0.678 |
| Academic consolidation        |          | 47.71(8.80)   | 48.28(7.70)        | 49.09(7.24)       | 47.54(7.18)   | 0.257 |
| Communication skills          |          | 46.99(12.27)  | 48.86(11.24)       | 48.36(11.18)      | 51.31(15.01)  | 0.330 |
| Exchange of idea              |          | 51.03(11.05)  | 49.91(10.50)       | 48.55(10.58)      | 51.17(12.28)  | 0.426 |
| Social consolidation          |          | 49.01(8.92)   | 49.38(9.63)        | 48.46(8.94)       | 51.24(13.28)  | 0.202 |
| Professor inquiry             |          | 45.54(11.76)  | 45.61(10.74)       | 45.83(8.68)       | 42.82(13.07)  | 0.150 |
| Department inquiry            |          | 48.13(10.33)  | 47.49(9.79)        | 50.42(9.51)       | 52.88(7.26)   | 1.221 |
| Career identification         |          | 48.07(10.52)  | 46.38(9.60)        | 49.59(11.29)      | 51.62(15.61)  | 1.038 |
| Satisfaction of department    |          | 47.25(9.02)   | 46.49(8.44)        | 48.62(8.24)       | 49.11(8.47)   | 0.640 |
| Occupation                    |          | 50.32(11.05)  | 50.44(9.43)        | 48.75(8.93)       | 49.65(11.19)  | 0.315 |
| Finance                       |          | 51.03(11.12)  | 50.87(10.24)       | 49.89(12.13)      | 52.04(8.33)   | 0.135 |
| Social activity I             |          | 49.03(9.56)   | 50.16(9.27)        | 49.11(9.00)       | 44.78(19.82)  | 0.582 |
| Social activity II            |          | 48.91(10.13)  | 48.21(10.26)       | 47.40(11.52)      | 42.55(11.71)  | 0.657 |
| Service acceptability         |          | 49.83(6.64)   | 49.92(6.42)        | 48.79(7.14)       | 47.25(9.34)   | 0.487 |
|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          | 51.94(12.52)  | 49.36(9.86)        | 51.62(10.41)      | 50.15(7.06)   | 0.587 |
| Academic support system       |          | 50.14(10.55)  | 47.74(8.80)        | 50.01(11.47)      | 46.58(12.01)  | 0.700 |
| College environment           |          | 50.60(13.71)  | 51.10(10.46)       | 49.73(9.12)       | 50.85(5.98)   | 0.149 |
| Satisfaction of college       |          | 50.89(11.56)  | 49.40(8.58)        | 50.46(8.72)       | 49.19(7.41)   | 0.232 |
| Total                         |          | 782.56(89.38) | 779.25(89.38)      | 785.61(71.28)     | 776.55(80.99) | 0.069 |

\*p<.05, \*\*p<.01, \*\*\*p<.001



4) 학점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

학점에 따라서는 '69점 이하'의 중도탈락 의도가 819.74점으로 가장 높고 '90점 이상' (757.13점)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5개 영역 중 학문적 통합성, 학과만족, 서비스의 수용성에 대한 불만은 '69점 이하'가 각각 52.34점, 52.42점, 52.33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통합성과 대학만족에 대한 불만은 '80~89점'이 각각 49.97점과 51.04점으로 가장 높았다. '90점 이상'에서는 학문적 통합성(44.64점), 사회적 통합성(47.13점), 학과만족(44.66점)에서 불만이 가장 낮았고, '80~89점'은 서비스의 수용성(48.14점),

'69점 이하'는 대학만족(48.12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점에 따라서는 5개 영역 중 학문적 통합성(p<.01)과 학과만족(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6개 하위요인의 경우 '90점 이상'에서는 직업(51.80점)이 가장 높고, 학습(39.53점)이 가장 낮았으며, '80~89점'에서는 행정지원체계(52.17점)가 가장 높고 사회활동 II(46.24점)이 가장 낮았다. '70~79점'에서는 학습(53.42점)이 가장 높고 교수질의(45.70점)가 가장 낮았으며, '69점 이하'에서는 진로정체성(55.77점)이 가장 높고 교수질의(42.47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점에 따라서는 16개 하위요인 중 학습(p<.001), 진로정체성(p<.01),

Table 6.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 of dropout intention in credit (N=150)

| Category                      | Variable | Credit        |                 |                 |               | F        |
|-------------------------------|----------|---------------|-----------------|-----------------|---------------|----------|
|                               |          | ≥90<br>(N=37) | 80~89<br>(N=68) | 70~79<br>(N=30) | <69<br>(N=15) |          |
|                               |          | M(S.D.)       | M(S.D.)         | M(S.D.)         | M(S.D.)       |          |
| Learning ability              |          | 49.69(9.73)   | 48.49(11.72)    | 48.71(10.27)    | 52.61(9.77)   | 0.643    |
| Learning                      |          | 39.53(10.34)  | 47.55(11.34)    | 53.42(10.53)    | 52.06(13.38)  | 9.896*** |
| Understanding of learning I   |          | 44.15(12.13)  | 49.25(11.81)    | 50.49(7.35)     | 51.90(11.89)  | 2.758*   |
| Understanding of learning II  |          | 45.20(13.94)  | 49.21(11.68)    | 49.49(9.66)     | 52.79(11.20)  | 1.751    |
| Academic consolidation        |          | 44.64(7.01)   | 48.62(8.31)     | 50.53(6.52)     | 52.34(5.49)   | 5.405**  |
| Communication skills          |          | 46.24(12.19)  | 49.89(11.56)    | 48.01(11.25)    | 47.14(10.40)  | 0.878    |
| Exchange of idea              |          | 48.02(10.90)  | 50.06(10.16)    | 49.95(10.98)    | 52.30(12.10)  | 0.629    |
| Social consolidation          |          | 47.13(9.63)   | 49.97(8.74)     | 48.98(10.52)    | 49.72(8.56)   | 0.774    |
| Professor inquiry             |          | 50.45(8.54)   | 46.60(11.72)    | 45.70(9.15)     | 42.47(11.26)  | 2.392    |
| Department inquiry            |          | 46.49(9.91)   | 49.09(8.75)     | 50.25(10.33)    | 51.05(12.32)  | 1.197    |
| Career identification         |          | 45.03(10.00)  | 46.88(9.62)     | 50.85(11.48)    | 55.77(11.48)  | 4.905**  |
| Satisfaction of department    |          | 44.66(7.98)   | 47.24(9.70)     | 49.24(9.70)     | 52.42(9.29)   | 3.691*   |
| Occupation                    |          | 51.80(7.18)   | 48.74(9.73)     | 48.98(12.30)    | 51.27(8.79)   | 0.987    |
| Finance                       |          | 50.91(12.48)  | 50.39(11.42)    | 49.59(10.14)    | 52.95(6.20)   | 0.328    |
| Social activity I             |          | 51.46(11.13)  | 47.20(9.68)     | 50.22(8.28)     | 51.78(7.92)   | 2.116    |
| Social activity II            |          | 47.44(11.67)  | 46.24(9.51)     | 49.38(10.84)    | 53.31(11.92)  | 2.081    |
| Service acceptability         |          | 50.40(7.41)   | 48.14(7.13)     | 49.54(5.79)     | 52.33(4.54)   | 2.010    |
|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          | 49.80(10.75)  | 52.17(10.55)    | 50.99(9.14)     | 46.64(12.94)  | 1.262    |
| Academic support system       |          | 47.64(10.61)  | 50.20(10.41)    | 48.05(9.56)     | 49.38(10.86)  | 0.609    |
| College environment           |          | 51.28(11.93)  | 50.76(10.27)    | 50.02(11.29)    | 48.35(8.78)   | 0.297    |
| Satisfaction of college       |          | 49.57(10.37)  | 51.04(9.24)     | 49.69(8.33)     | 48.12(9.26)   | 0.510    |
| Total                         |          | 757.13(66.67) | 781.78(77.13)   | 795.00(85.52)   | 819.74(82.85) | 2.769*   |

\*p<.05, \*\*p<.01, \*\*\*p<.001

학습이해I(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6).

#### 4. 중도탈락 의도와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

중도탈락 의도와 하위 5개 영역의 상관관계의 경우 중도탈락 의도에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학문적 통합성(r=.766)이었고, 다음으로는 학과만족(r=.735), 대학만족(r=.554), 서비스의 수용성(r=.373)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 의도에 5개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를 보였다.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에서 학문적 통합성은 학과만족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r=.460)를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적 통합성(r=.362), 서비스의 수용성(r=.198), 대학만족(r=.187) 순으로 나타

났으며, 학문적 통합성(p<.01), 학과만족(p<.01), 서비스의 수용성(p<.05), 대학만족(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통합성은 학과만족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r=.435)를 보였고, 다음으로 대학만족(r=.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의 수용성과는 음의 상관관계(r=-.092)를 보였다. 사회적 통합성은 통계적으로 학과만족(p<.01)과 대학만족(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과만족의 경우에는 대학만족과 양의 상관관계(r=.347)를 보였고, 대학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를 보였으며, 서비스의 수용성은 대학만족과 음의 상관관계(r=-.093)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7).

Table 7. Correlation between categories

| Category                   | Academic consolidation | Social consolidation | Satisfaction of department | Service acceptability | Satisfaction of college | Total |
|----------------------------|------------------------|----------------------|----------------------------|-----------------------|-------------------------|-------|
| Academic consolidation     | 1                      |                      |                            |                       |                         |       |
| Social consolidation       | .362**                 | 1                    |                            |                       |                         |       |
| Satisfaction of department | .460**                 | .435**               | 1                          |                       |                         |       |
| Service acceptability      | .198*                  | -.092                | .005                       | 1                     |                         |       |
| Satisfaction of college    | .187*                  | .179*                | .347**                     | -.093                 | 1                       |       |
| Total                      | .766**                 | .553**               | .735**                     | .373**                | .554**                  | 1     |

\*p<.05, \*\*p<.01

## IV. 고찰

우리나라 대학(교)들은 재학생의 자아실현과 함께 교육, 연구 및 봉사를 통해 유능한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임근옥, 2004), 각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이론 및 기술을 겸비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인적자

원의 감소로 인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입학정원은 고등학교 졸업생 수 보다 더 많아진 실정이며(김효은과 김기원, 2011), 이에 따라 많은 국내 대학(교)들은 재학생을 유지하기 위해 중도탈락 의도가 있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서비스를 집중하거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며 재학생들의 진로 지도와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김수연, 2007),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거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학과와 학년, 성별 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개인별 독특한 요

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입장 즉 수요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진로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 및 학과별 재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학과 학생의 융화정도가 학생의 중도탈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Tinto, 1988; 박승철, 2012).

본 연구결과 일 대학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의도 총점은 782.14점이었고, 5개 영역 중 대학만족에 대한 불만이 50.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6개 하위요인에서는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불만이 50.80점으로 가장 높고, 재정(50.61점), 대학환경(50.50점)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일 대학 치기공과 재학생들은 대학의 행정지원체제와 대학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 대학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러한 결과가 중도탈락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에서 학생을 외면한 행정지원체제(박금주, 2013), 대학만족도(임연과 곽윤영, 2011), 교육기관의 환경적 요인(권혜진, 2010)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가 811.34점으로 남학생(770.02점)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1$ )가 나타났으며, 5개 영역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중도탈락 계획이 더 높게 나타난 김수연(2006), 임연옥(2007), 이재도(2008), 박희민(2010)의 결과와는 다르지만 오지혜(2007), 김경희(2011), 조장식(2011)의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이화식 등(2011)은 치기공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확신 높고, 정효경과 장은진(2011)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더 높다고 했으며, 최운재와 유상희(2012)는 남학생의 학과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치기공(학)과의 전공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보철물 제작을 위한 실습수업의 비율이 높고, 수업 중 주조(Casting)와 연마(Polishing)등 장비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강한 남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의 중도탈락 의도가 791.59점으로 2학년(772.43점)보다 높았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개 영역 중에서는

학과만족( $p < .05$ )에서, 16개 하위요인 중에서는 교수질의 ( $p < .01$ ), 학습( $p < .05$ ), 학습이해I(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김윤남(2009)과 연령이 많을수록 중도 탈락 계획이 더 높게 나타난 박희민(2010)의 결과와는 다르지만,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오지혜(2007)와 일치하고, 1학년의 중도탈락율이 2학년보다 2~3배 높게 나타난 김수연(2002), 재등록 의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다는 임연옥(2007)과는 일치하고 있다. 이화식 등(2011)은 치기공과 1학년들이 타 학년보다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진로선택의 만족감이 떨어지므로 충분한 지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고, Reason(2003)은 1학년과 2학년 사이에서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치기공과 신입생들에게 입학 초기부터 학과의 대한 확고한 비전과 학업동기 및 전문 구강보건 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상담과 지도시간의 확대와 함께, 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군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에서는 재학생(796.62점)이 복학생(756.40점)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1$ )가 나타났다. 재학생은 1학년과 2학년 중 여학생들이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학년이 2학년보다 중도탈락 의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화식 등(2011)에서 군 복무경험이 있는 학생이 군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전공에 있어 확신과 만족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한다면, 복학생들의 경우는 군을 제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복학하는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과 및 학교, 교우관계, 학업성적 등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중도탈락 의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입학전형에 따라서는 일반전형의 중도탈락 의도가 784.41점으로 특별전형(767.39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5개 영역에서도 일반전형이 특별전형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난 이재도(2008)의 연구와 상이

하므로 더욱 많은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승철(2012)에서 자신의 대학과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정시전형 입학군이 수시전형 입학군에 비해 중도탈락율이 평균 4% 포인트 이상 높았다는 결과를 고려 할 때, 치기공과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정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조기상담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강원도의 중도탈락 의도가 785.61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782.56점), 경기도(779.25점), 기타지역(776.55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교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율이 낮게 나타난 김수연(2006)과 대학 소재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 학업지속 확률이 더 높았다는 임연옥(2007), 타 지역에서 온 학생이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난 조장식(2011)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오영재(2005)은 서울지역 소재대학으로 편입학 한 학생들은 제도요인과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수원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편입학 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편입학 한 학생들에 비해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강원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 의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대한 동경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입학자에 대한 지역 내 이미지가 더 좋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학점에 따라서는 '69점 이하' (819.74점)의 중도탈락 의도가 가장 높고, '70~79점' (795.00점), '80~89점' (781.78점), '90점 이상' (757.13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 )가 나타났다. 이는 이재도(2008)에서 학생부 성적이 낮을수록 중도탈락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조장식(2011)에서 평균평점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Reason(2003)은 대학 첫 학기의 성적이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신입생 첫 학기부터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지를 갖도록 학습능력 조사를 통하여 학과 스터디, 선·후배간의 멘토와 멘티 연결, 학습동아리 운영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재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목표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별 개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도탈락 의도와 하위 5개 영역의 상관관계의 경우 중도탈락 의도에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학문적 통합성( $r = .766$ )이었고, 학과만족( $r = .735$ ), 대학만족( $r = .554$ ), 서비스의 수용성( $r = .3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1$ )를 보였다. 이는 개인의 학습능력이 주요 세부변인으로 구성된 학문적 통합성이 다른 요인들 보다 중도탈락 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김용남(2009)은 학문적 통합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의 만족이, 박희민(2010)은 개인적 요인이, 김정희(2011)는 개인 흥미 요인과 자긍심이, 권혜진(2010)은 개인의 흥미변인이 다른 변인들보다 가장 많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고,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고, 김수연(2006)은 실증분석 결과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 대학 만족도가 중도탈락을 잘 예측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성정민 외(2012)는 현 치기공사 교육만으로는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이 부족하여 임상에 진출해서도 숙련된 기공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한 결과를 볼 때, 앞으로 치기공과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낮아지고 이에 따라 중도탈락 의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노혜란과 최미나(2008)에서 전공과 진로의 관련성이 적고, 본인의 선택이 아닌 경우 중도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치기공과 입학생들은 본인의 선택으로 입학한 경우가 가장 많고(최운재와 유상희, 2012), 치기공(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전공과 진로의 일치도가 높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각 대학의 대책에 따라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학생의 보유율과 등록률은 대학의 발전의 성패를 결정하고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이며, 중도탈락은 학교재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학교발전의 성패를 결정하고 학교운영에 커다란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권혜진, 2010), 재학생의 중도탈락은 학생의 대학경험

요인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중도탈락 현황 파악과 대학경험 과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김용남, 2009). 또한 대학 중도 포기나 재등록 의도 결정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임연옥, 2007), 대학 중도탈락자들은 진로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주위의 중요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최명선과 강지희, 2008), 고등학교 때와 같이 지도교수가 담당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학생들은 대학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므로 학업중단 가능성은 줄어든다(김은경, 2002).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여 치기공(학)과에서는 전임교수의 지도시간 등을 통해서 재학생들이 자긍심과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면밀한 개별지도가 필요하고,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상담 센터나 취업지도 센터 등 각종 부속기관들을 통합·개선하여 학생들이 소속대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인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치기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의 결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으며, 1,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실제 치기공(학)과 중도 탈락자들의 의도와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단위의 치기공(학)과 재학생들과 실제 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세부적인 중도탈락 요인들이 추가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일 대학의 치기공과 재학생들이 대학을 중도 탈락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하여 재학생들의 조기탈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강원도 S시 소재 치기공과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K-Vision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 대학의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의도 총점은 782.14점으로 나타났고, 5개 영역별 점수에서는 대학 만족(50.12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고 학과만족(47.51점)이 가장 적었으며, 16개 하위요인에서는 행정지원체계(50.80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고, 교수질의(45.56점)에 대한 불만이 가장 적었다.

2. 성별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에서는 여학생이(811.34점) 남학생(770.02점)보다, 학년에서는 1학년(791.59점)이, 2학년(772.43점)보다, 학생군에서는 재학생이(796.62점)이 복학생(756.40점)보다, 입학전형에서는 일반전형(784.41점)이 특별전형(767.3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에서는 강원도(785.61점)가 가장 높았고, 학점에서는 '69점 이하' (819.74점)의 중도탈락 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p < .01$ ), 학생군( $p < .01$ ), 학점( $p < .05$ )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년, 입학전형, 거주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5개 영역에서 성별은 학과만족( $p < .01$ ), 대학만족( $p < .05$ )에서, 학년은 학과만족( $p < .05$ )에서, 학생군은 학문적 통합성( $p < .01$ ), 학과만족( $p < .01$ )에서, 학점은 학문적 통합성( $p < .01$ )과 학과만족(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입학전형과 거주지에 따라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4. 하위 16개 요인의 경우 성별에서는 진로정체성( $p < .01$ ), 교육지원체계( $p < .01$ ), 사회활동II( $p < .05$ )에서, 학년에서는 교수질의( $p < .01$ ), 학습( $p < .05$ ), 학습이해I( $p < .05$ )에서, 학생군에서는 학습( $p < .001$ ), 진로정체성( $p < .001$ ), 학습이해I( $p < .01$ ), 학습이해II( $p < .01$ ), 교수질의( $p < .01$ ), 학습능력( $p < .05$ ), 직업( $p < .05$ ), 사회활동II( $p < .05$ ), 행정지원체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점에 따라서는 학습( $p < .001$ ), 진로정체성( $p < .01$ ), 학습이해I(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입학전형과 거주지에서는 16개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 하위 5개 영역 중 학문적 통합성( $r=.766$ )이 치기공과 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학과만족( $r=.735$ ), 대학만족( $r=.554$ ), 서비스의 수용성( $r=.373$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1$ )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각 대학에서는 치기공(학)과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운영의 관점에서 재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1학년은 자신이 선택한 치기공(학)과에 대한 올바른 비전제시와 함께 치과기공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지도교수의 인성교육 시간을, 2학년은 다양한 치과보철물 전공과목별 효율적 공부방법과 임상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문교육 상담시간을, 3학년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직무별 특성상담 및 국가시험을 대비한 취업교육 상담시간을 갖는 등 학년별로 치기공(학)과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지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의도에 개인의 학습능력으로 구성된 학문적 통합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학년별 학점 취득여부를 학기별로 파악한 후, 학점취득과 학과적응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푸른색, 미취득 과목이 있어 졸업에 지장이 있거나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는 노란색, 취득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위험하거나 학과에 적응을 힘들어 하는 경우는 빨간색으로 구분된 스티커 등을 부착한 학생 지도카드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관리하는 가칭 '신호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신입생 초기부터 졸업까지 학년별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치과기공사의 양·질적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Bae BJ, Lee HS. The research on the career plan of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revolve around D college students). The J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3(4), 479-493,

2011.

Cho JS. Determination analysis for students of university dropout. J Korean data anal Soc 13(4B), 1873-1880, 2011.

Choi MS, Kang JH. Qualitative study about experience of students dropping ou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7), 203-225, 2008.

Choi UJ, Yu SH. A research on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The J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4(3), 263-271, 2012.

Garrison D.R. Status and trends of distance education, Lund, Sweden. Lector publishing, 1985.

Im YW. A substanti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variables and dropout in cyber university. J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11(2), 205-218, 2007.

Jung HK, Jang EJ. A study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training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according to their gender. The J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3(1), 103-112, 2011.

Kang SH.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dropout th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J of Educational evaluation 23(1), 29-53, 2010.

Kim EK. Development of an academic advising system based on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Yonsei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02.

Kim HE, Kim KW. Influence of friendship to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 out and mediation effect of school adaptation. J of Fashion business 15(4), 87-109, 2011.

Kim KH.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university students' halting their academic

- studies and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J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8), 378-387, 2011.
- Kim SY.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stud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n two-year college student attrition in Korea. *J of Korean education* 29(1), 123-148, 2002.
- Kim SY. A study on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out of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students. *J of Korean education* 33(4), 33-62, 2006.
- Kim SY. An analysis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student support programs effecting on student reten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0(1), 111-141, 2007.
- Kim YM. An analysis of factors of influence on college student withdrawal. Chungnam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09.
- Kwon HJ. The effects of personal, institutional, social variables on determination of the cyber university students' dropout intention. *J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3), 404-412, 2010.
- Lee HS, Bae BJ, Chang KW. Research on the major selection and the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in D-college). *The J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3(4), 427-440, 2011.
- Lee JD. A Study on the Academic Dropout of College Students. *J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1(1), 47-54, 2008.
- Lim E, Kwak YY. Female college students leave of absence types and related factors. *The J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0(2), 231-248, 2011.
- Lim KO. The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major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heir career plans. Wonkw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4.
- Oh JH. An analysis on the reasons of local student's dropout. Jeonju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7.
- Oh YJ.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tudent Mobility between Universities. *The J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3(1), 327-356, 2005.
- Park GJ. A study on the dropout of students entering the university through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Dankook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13.
- Park HM. An Analysis On The Reasons Of Junior College Students' Dropouts, Kyonggi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0.
- Park SC. A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admission type and dropout of engineering university students. *J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5(5), 98-107, 2012.
- Reason RD. Student variables that predict retention: recent research and new developments. *NASPA Journal* 40(4), 129-148, 2003.
- Seong JM, Lee SK, Park YD. Survey about continuing education after graduation of dental technician. *The J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4(1), 37-43, 2012.
- Shin HS.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understanding about professional jobs. Dongeui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9.
- Tinto V. Stages of student departure: reflections on the longitudinal character of student leaving.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9(4), 438-455, 1988.
- <http://www.academyinfo.go.kr/UIPISA>